

영산강 승촌보 상시개방·죽산보 해체 결정

유역관리위원회 회의 결의 승촌보 이전 속 투표로 결정 지역 환경단체 일제히 환영

영산강 죽산보(狀)가 건설 8년만에 결국 해체 수순을 밟는다.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영산강·성진강유역관리위원회(유역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나라키움 광주종합청사에서 비공개로 제 11차 민간위원회의를 열고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 안을 결의했다. 앞서, 지역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환경부 '4대강 조사·기획위원회'의 지난해

2월 권고안과 같은 안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제기됐었다.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죽산보를 '해체' 하라고 결론을 내린 반면, '승촌보 상시개방' 안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 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촌보의 경우 농업용수 부족 및 황포돛배 등 관광산업 차질 등을 감안해 상시개방이 아닌, 탄력적 개방 형태로 보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유역관리위원회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이날 최종 회의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예상대로 승촌보의 상시개방과 탄력적 개방을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나뉘면서 투표에 부쳐졌고 결국 '상

시개방'하는 쪽으로 참여자들 의견이 기울었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상시개방'과 '탄력적 개방' 두 안에 대한 각각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시개방'안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게 참가자들 설명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이견이 오간 만큼, 위원들도 개표 전까지 투표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개표결과 결국 '상시개방'안이 과반수를 살짝 넘는 득표수를 획득하며 아슬아슬하게 최종 결정됐다"고 전했다. 승촌보 상시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꼽혔던 농업용수 부족 문제와 관련, 일부 위원들은 "탄력개방 안을 지지하는 위원들 사이 주장하고 있는 농업용

수 부족 문제는 연구 조사 용역을 거쳐 대책안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광산업 차질 우려와 관련, 위원들은 관광산업에서 황포돛배가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산업, 농업용수 부족 문제 모두 승촌보를 상시개방하는데 큰 걸림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유역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관계자는 "이날 유역관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늘 결정으로 영산강 재자연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회, 광주 도연학원 이사장 국감 증인 채택

명진고 채용 문제 도마에 국회가 도연학원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명진고 운영과 교사 채용 관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교육위가 어제 광주교사노동조합에 팩스로 다음 달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진고 이사장을 증인으로, 손규대 교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운영의원 측은 "명진고 문제를 알아보고자 교육위 차원에서 이사장과 손 교사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교사노조는 "공약제보자인 교사를 보복 해임한 명진고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

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교사노조는 손 교사를 해임·임용취소 한 것은 법인 측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교사채용 당시 명진고 전 이사장이 손 교사에게 5000만원을 요구해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 손 교사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법인이 추정하고 이에 대해 보복한 것으로 광주교사노조는 보고 있다. 일부 학생들도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연학원 김인전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는 자신이 먼저 임용을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배임중재미수 혐의로 고발돼 정령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크게 손상했다"며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 지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2020 북구민의 날' 랜선 기념행사 개최 26일 구청 회의실

광주시 북구가 개정 40주년과 '북구민의 날' (9월 26일)을 맞아 구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구민상 수상자, 시·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2020 북구민의 날' 랜선 기념행사를 갖는다. 북구는 코로나19 감염위험 탓에 이번 기념식과 미래비전선포 등 현장 행사를 최소화하고 비대면방식(온라인) 위주의 소박한 행사로 치를 예정이다. 행사장 내에는 1인 4㎡ 면적 유지하고, 좌석은 지그재그 배치하는 등 (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및 마스크 착용해 코로나 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한다. 이날 행사는 개회, 현장 및 영상 '참여자 덕분에 헬렌지', 북구 40년 역사 동영상 시청, 구민상 시상, 동별 랜선 축하 메시지 전달, 2030 북구발전계획 비전 선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수기명부 대신 전화 한통화로 안심 출입 23일 광주 북구청 청사 출입구에서 민원인들이 출입시 작성하는 수기명부 대신 '안심콜 청사 출입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안심콜 청사 출입관리 시스템' 명부작성이나 규알코드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청사 출입시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전화번호와 시간 등 통화기록이 전산 서버에 남고 4주간 보관 후 폐기되는 시스템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동구, 아파트 재활용폐기물 신고시스템 운영

광주 동구가 공동주택 90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신고시스템을 운영,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3일 동구에 따르면 재활용폐기물물대 신고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관리한다. 동구는 모니터링으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 올바른 재

활용품의 분리수거 유도도 재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동구는 매월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물대 성분별 배출현황과 발생량을 바탕으로 공동주택별 발생 폐기물의 성분에 맞춰 맞춤형 분리배출 요령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구는 오는 12월 공동주택을 대

으로 우선 시행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맞춰 분리배출 항목의 세분화와 배출요령 개선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활폐기물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환경을 살릴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 실천 등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받는다

최저임금보다 5.73% 많아 생활임금을 시급 9220원으로 산정해 결정했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5.73% (월 10만 45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근로자(1개월 미만 교육공무직원 결원대체,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최저임금 적용자 등) 896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재정이 악화됐지만, 우리 교육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지리산 단풍 내달 12일 절정

설악산 17일 내장산 26일 30일여 가장 늦게 절정을 이룬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단풍지도는 대부분 도시지역 관측 자료에 중점을 두고 부족한 부분을 인공위성 자료로 보충해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국립수목원 단풍지도는 국내 거의 모든 산에 자생하는 토종 '당단풍나무'를 기준으로 2009~2020년 기록을 인공지능 기법으로 분석해 예측했다. 정수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단풍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생태계 서비스를 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생의 휴지기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기법으로 식물 계절 현상을 예측한 세계 첫 사례"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회전목마 인생 이기원 수필집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서점 판매 | 광주(충장서림, 삼복서점, 초원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림), 전주(웅진서적, 민중서관, 흥지서림)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에스24, 알라딘, 영풍문고(배송료 무료)

평범한 사람의 사회생활 이야기